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열돌

金 鍾 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崔性澤 사장〉

우리나라 석유에너지 개발의 先頭走者로서 지난 1979년 3월 3일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사장 : 崔性澤)가 올해로써 창립 열돌을 맞았다. 산유국들의 거둬드는 油價인상에대하여 이렇다 할 저항수단 없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제2차 석유위기의 와중에서 우리 정부는 石油資源의 개발, 石油의 비축, 原油도입 및 石油流通構造의 개선에 관한 사업수행으로 석유수급의 안정을 이룩하여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석유사업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부응해서 발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이란·이라크 전쟁과 2차 석유위기 등 격랑의 소용돌이속에서 세계 각국의 石油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이미 石油로 인한 긴박감이 고조될대로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국영석유회사의 설립시기 자체가 때늦은 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출범해야 했다.

油開公 창립 열돌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석유업계를 회고해 보면, 사실상 지난 10여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석유사업에 처음 손을 댄 시기라고 할 수 있어서 모든 일이 새롭고 생소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기필코 해결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이어서 여러각도로 접근을 시도하

고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1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아 石油분야에서 油開公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나의 정부투자기관으로 평범히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업상의 특성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감지하게 된다.

바야흐로 열돌을 맞이한 오늘 油開公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영석유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油開公의 열돌은 石油자원을 안가진 민족의 비애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지난날의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 즉 石油자원의 개발, 비축, 석유유통구조개선 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도전과 시련의 시기이며 의지와 집념으로 後發 석유회사로서의 후진성을 극복해 내려고 무던히 애쓴 흔적을 회사 안팎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다.

발족 열돌을 맞은 경사스러운 油開公 사옥을 찾아 그동안 유개공이 이룩한 발자취와 경영 방향을 타진해 보았다.

국내 石油수요의 20%를 開發原油로

- 油開公의 최우선 경영목표로 내걸어

油開公은 지난 '86년 1월 崔性澤 사장 취임 이래 본연의 사업인 石油開發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겠다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信念과 經營方針에 따라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정비 강

화하고, 늦어도 서기 2천년대까지는 국내石油수요의 20%를 자주적인 개발원유로 충당한다는 가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지난 '87년 12월 대륙붕 단독광구인 제6-1광구의 돌고래3구조에서 국내 최초로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 噴出되는 천연가스가 불기둥구름 모양의 장관을 이루면서 힘차게 불타는 모습을 보여 주어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고, 이어 지난해 연말에는 다시 동일광구 돌고래2구조에서 분출하는 천연가스층을 발견하여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게 한 바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첫번째 발견된 가스층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작년도 돌고래2구조에서의 가스田 유무를 가리기 위한 종합평가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기대를 갖게하고 있는 작금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油開公의 이러한 유전개발활동은 1970년 이래 걸프, 셀, 텍사코 등 세계 굴지의 메이저에 의한 탐사 실시 이래 14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얻지 못한 결과임을 간파할 수 없다. 더구나 순전히 우리 기술, 우리 자본, 우리 국적선 斗星號(반잠수식 시추선)에 의해서 우리나라 연안 대륙붕에서의 가스층 발견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산유국으로의 희망을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인내와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 하겠고, 또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대륙붕 개발사업을 더욱 밝게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崔性澤 사장은 『석유개발사업이란 막대한 자금과 투자회임기간의 장기성, 고도의 기술과 경영능력이 필요한 사업이며, 불과 4~5%밖에 안되는 성공률을 바라보고 큰 돈을 투자해야 하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으며, 또 한 두 번의 실패로 실망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전제, 『우리나라 대륙붕에서의 석유개발사업도 이와같은 시각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탐사 시추활동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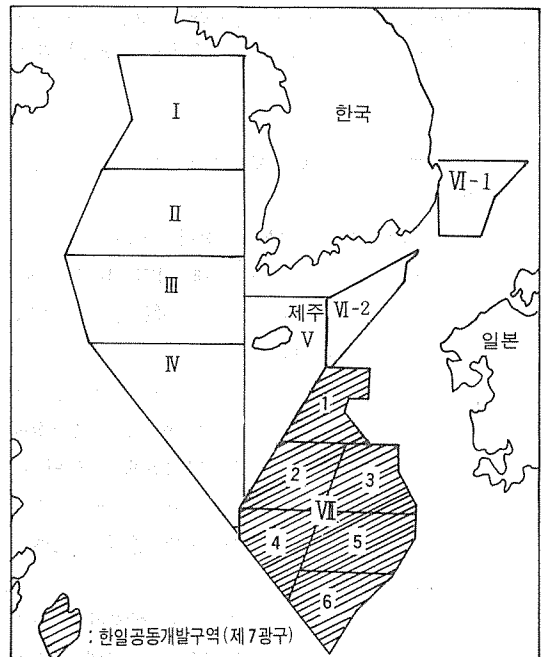
여하튼 油開公은 創社 이래 지난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대륙붕 연안 광구에 대한 단독탐사 시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 영토 안에서의 石油자원 발견에 한걸음 더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美 BHP社와 제1광구, 美 마라톤社와 제2광구, 美 Hadson社와 제5광구에 대한 공동탐사를 각각 추진할 계획에 있고 제3광구 및 제4광구에 대한 유망구조 확인을 위한 물리탐사활동을 벌이는 등 자신감과 의욕에 찬 개발활동 추진을 서두르고 있어서 마음 든든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석유개발사업도 油開公이 油公, 삼환, 현대 등 국내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Hunt社 및 Exxon社와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北예멘 마리브 광구에서의 생산이 본격화 됨에 따라 지난 '87년도부터 이미 石油개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지역에서의 有望油田에 대한 개발참여 또는 매입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음도 괄목할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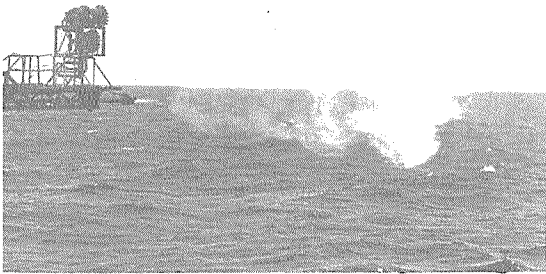
국내 대륙붕 광구도



〈註〉 대륙붕개발 외국업체참여 현황
 I : 美BHP社, II : 美마라톤社,
 III : 美이모코社, IV : 美유노틸社,
 VII 중 美허드슨社, VI-1 : 美AIP社,

崔性澤 사장은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油開公의 조직을 개편, 사업본부를 새로 두고 해외유전개발사업을 전담케 하는 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외광구 지분참여 사업으로는 北에멘 마리브광구 이외에도 '86년 11월부터 코데코에너지와의 콘소시엄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西마두라광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7년 9월부터 와림광구 개발사업, '87년



국내 대륙붕 제 6-1광구 돌고래II 구조에서 생산성시험중 천연가스가 분출되고 있다. (울산 동쪽 100km지점)

12월에는 말레이시아 SK-7광구개발 에도 콘소시엄을 구성 참여하고 있다.

한편, 既開發油田인 이집트의 칼다油田(현 산유량 : 약 20천B/D)에 대한 매입을 위해 이미 美 Phoenix社와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양당사국(韓國 및 이집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상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일벌했거니와 마치 황무지와 같던 석유개발사업을 이만큼 개척하고, 국제시장에 참여하여 우리보다 먼저 손을 댄 나라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내石油수요의 20%에 해당하는 原油를 자주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油開公의 줄기찬 노력에 갈채를 보낸다.

유전개발사업의 성공률이 매우 낮은 英國이 北海지역에서 무려 32개의 탐사정을 뚫고서야 마침내 유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같은 추세로 라면 머지 않아 油開公은 양질의 유전을 꼭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油開公의 열풍은 한층 돋보이는 듯 싶다.

모름지기 油開公은 우리 당대의 숙원인 국내 대륙봉에서의 石油부존 여부를 우리 힘으로 판가름하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국내유전개발사업을 주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油開公이 모체가 되어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해외석유자원 개발 진출을 선도, 조장하는 기수로서의 역할 또한 막중한 임무임에 틀림없다.

지난 1월 20일자 油開公 社長으로 다시 유임된 崔性澤 사장은 『이제부터 다가오는 또 다른 10년 후까지의 산업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이는 경제성 있는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수급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국가에 대한 油開公의 책무』라고 다짐하면서 470여명의 임직원과 더불어 유전개발의 꿈을 불태우고 있다.

믿음직한 動力의 搖籃

- 대규모 지상, 지하 기지에 原油를 비축
- 대형 LPG저장기지 완공 서둘러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주종 에너지인 石油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石油를 가급적 절약해서 쓰고, 또 힘자라는껏 간간히 비축해서 어려운 때를 대비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대책마련이 말과 같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님에도 그러한 과제를 油開公이 해 냈다.

세계적으로도 손색 없는 대규모 지상비축기지를 설계에서부터 시공 및 감리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우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그리고 첩판 등 기자재를 완전 국산화해서 이룩해 냈고, 지금은 이 기지에 原油가 가득히 비축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뚫듯하고 여유가 있는지 넉넉한 느낌이 든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지하 암반 굴착 비축기지 역시 우리 기술진이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터득해 가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완공을 했고, 지금은 엄청난 지하동굴에 原油가 또 가득하다고 하니, 그래서 이미 선진국수준에 버금가는 原油비축을 달성했다고 하니, 油開公 설립 당시 석유위기등 회오리 바람속에서 맨주먹으로 전전공공해야

했던 시절을 회고하면 격세지감을 금할 수 없다.

열풍을 맞이한 油開公이 그 동안 우리 힘으로 건설한 선진국 수준의 石油비축기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자부심은 비단 油開公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油開公은 국민의 재산인 소중한 비축유에 대해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미 비축기지 업무 표준화 작업까지 마무리해서 인력, 자재, 동력 등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1990년 이후의 石油수급에 걸맞은 정부차원의 石油비축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서 이제 石油비축문제에 관한 한, 오랜 민족적 숙원을 풀게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油開公은 G-1, K-1등의 석유제품 비축기지와 T-1, U-2 등 原油비축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84년도에 착수한 바 있는 LPG 지하비축기지의 건설공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운영요원이 투입되어 종합시

운전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석유류 流通構造 개선사업

- 韓國送油管(株) 설립, 송유관사업 본격화
- 석유정보 전산화 추진으로 정보기능 강화에 힘써
- 석유시장동향 보고로 첫 업무 시작해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분야에 있어서는 유통단계별 시장실태 파악과 아울러 국내석유시장의 취약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에너지정책 입안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초창기부터 석유류 수송의 근대화를 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장거리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자회사 한국송유관(주)을 설립하였으며 1단계 송유관 사업으로 瑞山-天安간 92km 거리의 송유관 부설공사를 역시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송유관 사업은 大田-서울(152km), 麗水-大田(281km), 溫山-大田(285km)구간 등 총 810km에

정부원유 비축사업의 일환으로 '81. 12월에 준공한 지상 비축기지



이르는 장거리 구간을 1996년까지 건설해 나갈 예정으로 유관기관 및 정유회사 등과의 종합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내외 석유시장 전반에 걸친 조사분석 기능을 꾸준히 향상시켜 비축유의 적기저가도입은 물론 해외 유망 개발유전의 확보를 위한 정확·신속한 석유관련 정보의 입수 및 분석으로 실리적인 석유사업 수행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石油정보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서 석유 정보 서비스 기능을 본격화, 경영정보체계의 연차적인 추진과 아울러 油價예측모델을 개발 가능하는 등 정보 기능의 강화로 석유사업의 특수성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석유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16년만에 실시된 국회의 국정 감사 등을 거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의혹의 대상으로 부상되었던 석유사업기금관리 및 운용의 모체가 油開公이다.

최근에는 5共非理 차원에서 검찰이 집중조사를 펼쳤으나 세간의 의혹처럼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워낙 기금조성액이 방대하고 석유사업에 대한 일반의 인색 부족과 그 동안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의도적인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油開公으로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고 털어 놓는다.

그도 그럴 것이 1979년 기금징수 개시 이래 규모는 무려 4조2천억원에 이르렀고, 이 돈으로 석유비축사업에 9천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등에 1조7천억원을 융자하고, 1조4천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규모이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음직하다.

그러나 기금은 지난번 검찰 조사결과 발표에서 밝혀졌듯이 제도적으로 결코 유용될 수 없는 조직적인 틀 속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빈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사실상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수입업자는 石油통관 전에 동력자원부 장관이 관계 경제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수입 신용장을 개설해 준 은행에 납부하고, 기금을 징수한 은행은 이를 당해 은행 한국석유 개발공사 당좌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기금 조성이 완료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그 과정에서 油開公이 그 기금을 유용할 여지가 없는 것』(검찰 수사결과 발표중에서 인용)으로 판명되어서 이제는 油開公의 기금담당 실무자들이 한결 밝은 모습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밝혀져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시련을 겪는 가운데 油開公은 더욱 단련되고 탄탄한 업무기반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고 어떤 직원은 지난날의 어려움을 털어 놓는다. 油開公 뿐만 아니라 우리 석유업계가 걸머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럽다. 앞으로 석유산업발전에 있어서도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기억되어서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油開公 정문을 나서면서

油開公의 10년 발자취를 주마간산적으로나마 더듬어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 것은 지난 10년이야말로 비단 유개공 뿐만 아니라 우리 석유업계가 꾸준히 진보의 발걸음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 닿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石油에너지가 어떻게 확보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산업계와 국민생활에 기여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역시 石油를 빼놓고 경제발전을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油開公의 앞날에 밝은 서광이 비치기를 기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油開公의 발전에 대한 이러한 기원은 바로 국민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石油자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어서 더욱 간절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

